

문화매개자: 박다(博多) 상인의 15~16세기 동북아 도자 유통

성고운

동북아 해역에서 유통된 도자와 그 유통세력에 대해, 한중일 학계는 명나라와 일본, 조선을 잇는 유구국(琉球國)의 중계 역할에 주목해 왔다. 그러나 유구국이 관여한 도자 무역은 동남아시아 무역에 더 치중되어 있었으며 15~16세기에 걸쳐 동북아의 자기 무역을 주도한 일본의 박다(博多) 상인에 관한 연구는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. 본 연구는 문헌자료와 고고 발굴 자료를 사용하여 박다 상인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을 도자 유통으로의 개입, 유통의 주도, 유통 물자 결핍의 해소라는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.

첫째, 15세기 초 박다 상인들은 유구국의 사신으로 가장한 위사(僞使)로서 관방무역에 개입한다. 이들이 조선왕실로 유입한 중국 도자의 구체적인 목록을 <조선왕조실록>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둘째, 15세기 중기에 이르러 박다 상인들은 일본과 대마도 세력 및 조선의 사신에 의탁하여 통교권을 획득하는 등 도자 무역을 주도한다. 고고 발굴 자료를 통해 이 시기 '유구-일본 박다-대마도-조선 내이포 왜관-한양 동평관'에 이르는 이동 경로를 따라 공무역은 물론 사무역이 이루어진 정황을 추적할 수 있다. 셋째, 15세기 말에 이르면, 박다 상인들이 유통하던 중국 청자 품종의 제작이 쇠퇴하고 유통량도 하락한다. 이 유통량 축소를 해소하기 위해 박다 상인들은 조선과의 왕래 횟수를 늘리고, 조선의 분청사기를 일본 시장에 공급하는 등 무역 품목의 다변화를 모색했다.

이러한 박다 상인들의 활발한 도자 유통 덕분에, 기존의 값싼 중국의 민요(民窯) 청자는 조선왕실에 정식으로 유입되었고, 조선 관요(官窯) 자기의 모방 대상품이 되었다. 그 외에도 조선의 왜관에서 식기로 사용되던 조선의 분청사기는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일본 '차노유(茶の湯)' 문화의 기폭제로 작용했다. 이렇게 본 연구는 그간 실록이나 문인들의 기록에서 처벌과 와해의 대상으로 쓰여진 시각에서 벗어나, 해양세력을 물질문명의 '문화매개자'로 바라봄으로써 그 역할을 재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.

성고운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로 2023년 <15~17세기 조선에 유입된 중국 도자 연구>로 중국 복단대학교(復旦大學, Fudan University)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. 그간 중국 도자의 양식 및 제작 기술 전파에 주목했던 기존의 연구시각과 달리, 중국 도자에 대한 조선의 사용가치와 시대별 변화 양상 등을 연구했다. 주요 논문으로는 「조선후기 청화백자 병화(瓶花) 도상으로 본 명대의 영향」 등이 있다. 2020년부터 7편의 논고를 중국어 및 한국어로 번역하는 등 한중 학술교류에도 힘쓰고 있다.

Date & Time: May 16, 2023. 12:00-13:00

Place: SNUAC Room 406 (4th Floor)